

# 文王八卦에 關한 研究

尹暢烈

1. 緒論 .....	59
2. 文王八卦次序圖 .....	59
3. 文王八卦方位圖 .....	60
1) 方位圖의 由來(四時八節의 變化를 설명함.) .....	61
2) 文王八卦方位圖와 五行의 關係 .....	62
3) 先天八卦에서 後天八卦로의 轉換原理 .....	63
4) 文王八卦圖의 特徵 .....	65
4. 結論 .....	66
參考文獻 .....	67

# 文王八卦에 관한 연구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關於文王八卦的研究

通過對文王八卦次序圖和文王八卦方位圖的研究，得到了如下結論。

1. 最初命名爲文王八卦次序圖和文王八卦方位圖的人是邵雍，文王八卦次序圖和文王八卦方位圖雖然沒有是文王所畫的確切的根據，但是從推演伏羲易，同事相結合，最終確立如今的易學體系的人是文王，而且還符合現今的易理，因此具有一定說服力。
2. 在文王八卦次序圖中三男由一陽二陰構成，三女由一陰二陽構成，這可以用陰陽互根的原理進行說明。
3. 伏羲八卦方位圖顯示某種空間相，而文王八卦方位圖則顯示四時，八節的變化和萬物生長的流行周期等時間上的變化。
4. 文王八卦方位圖同四時的五行相一致，是相生關係，八卦當中各有兩個木金土，是由于形很旺盛，水火各有一個是由于氣很旺盛。
5. 文王八卦方位圖在表面上看好象是五行相生的關係，但是，相互成對面的八卦的五行都成相剋關係，和東側相臨的坎水 艮土 震木 孫木都是成相克關係，從此可以知道相克是發展萬物的主體。
6. 對於伏羲八卦轉化爲文王八卦的原理，雖有各種理論提出，但是尚無確切的說法。
7. 伏羲八卦主要體現天道和外象等，文王八卦則體現人事和內情等。
8. 伏羲八卦爲體，文王八卦爲用，伏羲八卦中，爲變化的主體的天地即乾坤位于中軸，文王八卦中，爲變化的大用的日月即坎離位于中軸。
9. 伏羲八卦圖屬於表現春天的變化之象的第一掛圖，生掛圖和倉曹圖，文王八卦圖則屬於表現夏天的變化之象的第二掛圖，長掛圖和發展圖。
10. 文王八卦圖是流行以致其用的易之用，表現無秩序和混亂，韋和與乖離相互亂舞的亂陰亂陽之象。
11. 文王八卦圖和洛書的變化原理相一致，可以將洛書的數直接對應到文王八卦圖中，又名洛書八卦圖，九數圖或一九易。
12. 文王八卦圖的相對應的數字之合都爲十，這豫示了成掛圖十數圖的出現。

Key Words : 文王八卦次序圖, 文王八卦方位圖, 伏羲八卦, 河圖, 洛書.

접 수 : 2000년 9월 20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42-280-2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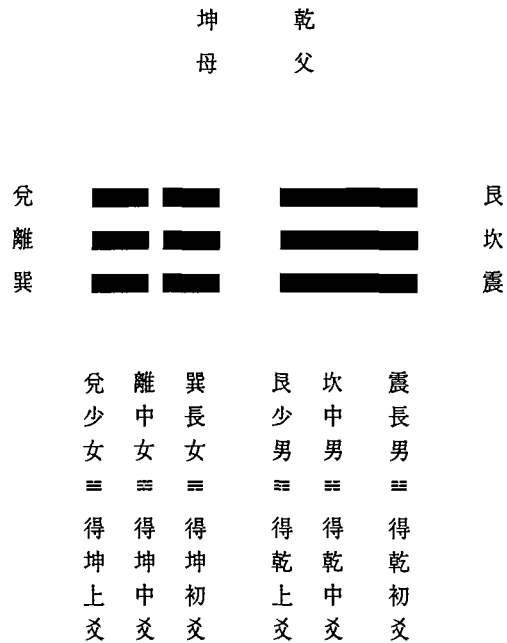
### 1. 緒論

文王八卦圖는 後天八卦圖라고도 하는데 文王八卦次序圖와 文王八卦方位圖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를 이렇게 命名한 사람은 北宋의 邵雍이다. 그는 皇極經世 觀物外 後天象數 第五에서 분명히 “起震終艮 一節은 明文王之卦也라.”<sup>1)</sup>고 하여 後天八卦를 文王의 창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陳搏이 전한 圖象중에서 乾坤坎離로 四正卦를 삼은 先天圖式은 伏羲氏가 그린 原始易이라 하여 先天圖라 하고 坎離震兌로 四正卦를 삼은 圖式은 文王이 伏羲易의 기초 위에서 推演하여 완성한 것이라 하여 後天圖라 하였다. 실제로 先天圖의 모습은 만물생성의 주체인 乾坤을 중심축에 놓아서 待對로써 萬物을 창조하는 원리를 나타내므로 易之體가 되고 後天圖는 만물번화의 주체인 坎離를 중심축에 놓아서 流行으로써 만물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나타내므로 易之用이 된다. 文王의 演易에 관한 내용은 史記에도 “其囚羸里 蓋益易之八卦爲六十四卦”<sup>2)</sup>라 하여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文王은 82세 때 殷의 紂王에 의해 지금의 河南省 湯陰縣이 있는 羸里獄에 갇혀서 7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易을 연구하여 면모를 일시하였고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sup>3)</sup>.

文王八卦는 萬物이 창조된 이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卦로 四時의 推移, 八節의 變化, 萬物生長의 流行 週期 및 陰陽의 互存, 互根, 五行의 相生, 相克 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醫學에서도 要緊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文王八卦次序圖는 또한 後天八卦次序圖라고도 부르며 이 그림은 처음 朱子の 『周易本義』에 나타난다. 周易說卦傳 10章에 “乾은 天也라 故로 稱乎父요 坤은 地也라 故로 稱乎母요 震은 一索而得男이라 故로 爲之長男이오 巽은 一索而得女라 故로 爲之長女요 坎은 再索而得男이라 故로 爲之中男이오 離는 再索而得女라 故로 爲之中女요 艮은 三索而得男이라 故로 爲之少男이오 兌는 三索而得女라 故로 爲之少女라”<sup>4)</sup>고 하였다. 이를 後世에 일반적으로 文王八卦次序圖라고 하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文王八卦次序圖 참고)

文王八卦次序圖



이는 萬物의 父母인 天池를 상징하고 있는 乾坤卦가 배합하여 三男三女의 六子를 生하는 原理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太極이 兩儀를 생하고 兩儀가 四象을 생하고 四象이 八卦를 생하는 一이 生二하는 自然之理에서 八卦가 생겨나는 것과는 다른 원리로 八卦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乾坤은 부모로써 전제가 되어 있고 이를

### 2. 文王八卦次序圖

1) 邵雍著, 皇極經世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2. p.352.  
 2) 史馬遷, 史記一, 北京, 中華書局, 1982. p.119.  
 3) 殷時學等 編著, 周文王羸里城,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6. pp.14-17.

4) 周易 四 貞, 大田, 學民文化社, p.555.

바탕으로 六子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八卦가 이미 그려진 뒤에 부모와 男女의 象을 이론적으로 推論한 것이지, 괘를 처음 그릴 때 父母의 象을 먼저 그리고 六子가 순서대로 나온 것으로, 즉 八卦生成의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朱子도 분명히 “처음 卦를 그릴 때 이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卦를 그린 뒤에 이러한 象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初間劃卦時에 不是恁地라 只是劃卦後에 便見有此象耳라)”<sup>5)</sup>라고 하였다.

八卦의 次序를 따질 때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은 八卦生成의 자연적인 理致이므로 始劃八卦한 伏羲氏의 이름을 붙여 伏羲八卦次序圖라 이름하고 乾父, 坤母, 震長男, 巽長女, 坎中男, 離中女, 艮少男, 兌少與의 순서는 易을 推演하고 人事와 결합하여 중흥시킨 文王의 공을 기려서 文王八卦次序圖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또 朱子는 위의 本文에 대해 설명하기를 “坤이 乾에서 求하는 때 그 제일 아래 첫번째 陽爻를 얻어 震이 되기 때문에 一索而得男이라 했고 乾이 坤에서 求할 때 그 제일 아래 첫번째 陰爻를 얻어 巽이 되기 때문에 一索而得女라고 했고 坤이 두번째로 구하여 乾의 두번째 陽爻를 얻어 坎이 되기 때문에 再索而得男이라고 했고 乾이 두번째로 구하여 坤의 두번째 陰爻를 얻어 離가 되기 때문에 再索而得女라고 했고 坤이 세번째로 구하여 乾의 꼭대기 세번째 陽爻를 얻어 艮이 되기 때문에 三索而得男이라고 했고 乾이 세번째로 구하여 坤의 꼭대기 세번째 陰爻를 얻어 兌가 되기 때문에 三索而得女라고 했다.(朱子曰坤이 求於乾하야 得其初九而爲震故로 曰一索而得男이오 乾이 求於坤하야 得其初六而爲巽故로 曰一索而得女오 坤이 再求而得乾之九二하야 以爲坎故로 曰再索而得男이오 乾이 再求而得坤之六二하야 以爲離故로 曰再索而得女오 坤이 三求而得乾之九三하야 以爲艮故로 曰三索而得男이오 乾이 三求而得坤之六三하야 以爲兌故로 曰三索而得女니라)”<sup>6)</sup>라고 하였다.

이를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乾坤이 交하여 震巽坎離 艮兌를 生할 때 生하는 主體는 父母가 되고 생겨난 것은 자식이 되며 一索, 再索, 三索은 初, 中, 終 三劃은

로 長, 中, 少의 순서를 取한 것이다.

또 震坎艮의 三男은 陽卦인데 陰爻가 더 많고 巽離兌의 三女는 陰卦인데 陽爻가 더 많은 것에 대해 玉齋胡氏는 “三男은 陽으로 乾과 비슷해야 하는데 도리어 坤이 주인이 되서 求한 뒤에 얻은 것이라하고 三女는 陰으로 坤과 비슷해야 하는데 도리어 乾이 주인이 되서 求한 뒤에 얻은 것이라 하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대개 三男은 본래 坤體가 각각 乾의 一陽을 얻어서 이루어지니 이것은 陽이 陰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坤에 귀속을 시켰고 三女는 본래 乾體가 각각 坤의 一陰을 얻어서 이루어지니 이것은 陰이 陽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乾에 歸屬을 시킨 것이다. 邵康節이 이르기를 어머니가 長男을 孕胎하여 復卦가 되고 아버지가 長女를 生하여 姤卦가 된다고 하니 陰陽互根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다.(玉齋胡氏曰 三男은 陽也라 乾之似也어늘 乃歸之於坤求而後에 得하고 三女는 陰也라 坤之似也어늘 乃歸之於乾求而後에 得은 何也로 蓋三男은 本坤體로 各得乾一陽而成하니 此는 陽根於陰故로 歸之坤也오 三女는 本乾體로 各得坤一陰而成하니 此는 陰根於陽故로 歸之乾也라 邵子曰 母孕長男而爲復하고 父生長女而爲姤라하니 陰陽互根之義를 可見矣니라)”<sup>7)</sup>라고 하여 陰陽互根의 原理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三男은 모두 坤母로써 體를 삼고 乾父로써 用을 삼으며 三女는 모두 乾父로써 體를 삼고 坤母로써 用을 삼는 이치가 담겨 있는데 繫辭傳의 陽卦多陰 陰卦多陽의 원리이다. 모든 卦에 있어서 적은 爻를 主爻라 하고 많은 爻를 客爻라 하는데 이는 어떠한 집단에서도 少數가 주체가 되어 多數를 지배하는 원리와 상통한다. 우리들의 가정을 보더라도 家長은 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樹木에 비교해 보아도 根幹은 하나인데 枝葉은 多數인 것과 동일한 이치라 할 것이다.

### 3. 文王八卦方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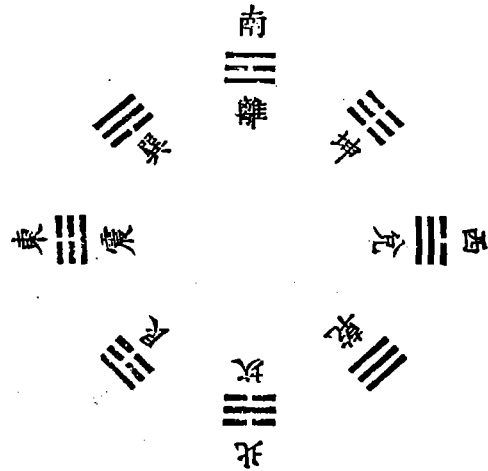
文王八卦方位圖는 後天八卦方位圖라고도 하는데 圖

5) 周易 一元, 大田, 學民文化社, p.118.

6) 上揭書, p.118.

7) 上揭書, p.119.

는 朱子의 周易本義에 처음 보인다. 그러나 이는 周易說卦傳의 “帝出乎震”一節에 근거하여 그린 것으로 邵雍이 이를 “文王八卦”라 하고 “後天之學”이라 한 것으로 보아 邵雍當時에 이 圖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一書에서는 이것이 漢易中の 京房의 八卦卦氣圖라고 말하고 있다<sup>8)</sup>. 邵雍이 이를 文王八卦圖라고 한 근거에 대해 雙湖胡氏는 文王이 지은 坤卦象辭의 西南得朋과 東北喪朋이 바로 이 方位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雙湖胡氏曰 邵子가 以此圖로 屬之文王八卦하니 蓋本之坤卦下之辭니 卦辭는 文王所作而謂西南得朋 東北喪朋이 正此圖之方位也라)<sup>9)</sup>



文王八卦圖

### 1) 方位圖의 由來(四時八節의 變化를 설명함.)

說卦傳에 “帝出乎震하여 齊乎巽하고 相見乎離하고 致役乎坤하고 說言乎兌하고 戰乎乾하고 勞乎坎하고 成言乎艮하니라”<sup>10)</sup>고 하였다.

伏羲八卦圖가 보다 공간적인 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文王八卦圖는 보다 시간적인 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文王八卦方位圖는 특히 一歲之造化를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帝出乎震이란 말을 공간적으로 해석하면 上帝 또는 皇帝가 震方에서 출현한다는 말이지만 다음 句節에 있는 “萬物이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라”한 것에 의거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萬物의 발생을 帝가 主宰하여 東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이를 節氣로 보면 生氣가 發揚하는 春分에 해당하고 方位로는 東方에 해당한다.

齊乎巽의 巽은 方位로는 東南方이고 계절로는 春夏之交인 立春에 해당한다. 이 때가 되면 만물이 깨끗하게 씻어 터서 일제히 자라게 되는 때이므로 下句에서 齊也者는 言萬物之潔齊也라 하였다. 이는 震에서는 發露하고 巽에서 畢達한다는 뜻이다.

相見乎離에 대해 下句에서 離也者는 明也니 萬物이 皆相見할새니 南方之卦也니 聖人이 南面而聽天下하야

響明而治하니 蓋取諸此也라 하였다. 이는 離方은 南方으로 南方은 光明한 곳이고 계절로는 여름의 夏至로 이때가 되면 萬物의 형체가 분명하고,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致役乎坤은 下句에서 坤也者는 地也니 萬物이 皆致養焉할새 故로 曰致役乎坤이라 하였다. 여기서 致는 委의 뜻으로 말는다는 뜻이다. 夏秋가 交易하는 때에는 땅이 萬物을 기르는 책임을 맡아 極度로 勞役을 한다는 뜻이다.

說言乎兌는 下句에서 兌는 正秋也니 萬物之所說也일새 故로 曰說言乎兌라 하였다.兌는 방위로는 正西方에 속하고 계절로는 正秋에 속하는데 이때가 되면 만물이 결실을 하여 기뻐하는 象이 있다.

戰乎乾은 下句에서 乾은 西北之卦也니 言陰陽之相薄也라 하였다. 乾은 方位로는 西北方으로써 殺氣가 강하고 계절로는 秋冬之交로 肅殺之氣가 작용하는 時節이므로 싸운다고 표현한 것이다. 陰陽之相薄은 乾은 陽인데 西北인 陰方에 居하므로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고 볼 수 있고 陽氣가 收斂될 때 陰氣가 강해져서 서로 싸운다고 볼 수 있다.

8) 呂紹綱主編, 周易辭典,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2. p.414.  
9) 周易 四 貞, 上揭書. p.123.  
10) 周易 四 貞, 上揭書. p.538.

勞乎坎은 下句에서 坎者는 水也니 正北方之卦也니 勞卦也니 萬物之所歸也일새 故로 曰勞乎坎이라 하였다. 여기서 勞는 慰勞한다는 뜻으로 萬物이 모두 여기에서 歸藏되고 休息하면서 慰勞를 받는다는 뜻이다.

成言乎艮은 下句에서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일새 故로 曰成言乎艮이라 하였다. 艮은 方位적으로는 東北에 해당되고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봄이 交易하는 곳으로 萬物의 終始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艮은 止也이다. 止則便生하고 不止則不生하니 艮은 終萬物 始萬物하며 成終成始하는 造化 자리이다.

이상은 一氣가 유행하여 萬物이 생성하는 順序와 功德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 2) 文王八卦方位圖와 五行의 관계

乾은 說卦傳에서 爲金이라 하였고 雙湖胡氏는 “爻純剛이 爲金이라”<sup>11)</sup>하였다.

坤은 一陽이 在內하여 二陰을 뚫고 奮擊而出하므로 五行에서 木에 속한다.

巽은 說卦에서 爲木이라 하였고 風이 되므로 五行에서 木에 속한다.

坎은 水가 되고 離는 火가 된다. 艮은 山이 되고 性情이 止하므로 五行에 있어서 土가 된다. 兌는 上이 陰爻로서 陰氣가 위에서 안으로 수렴하여 들어가므로 五行에 있어서 金이 된다.

文王八卦方位圖는 春夏秋冬의 五行의 順序인 木(震木 巽木), 火(離火), 土(坤土), 金(兌金, 乾金), 水(坎水), 土(艮土)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進齋徐氏는 “坎離는 天地의 大用이니 乾坤의 中氣를 얻었기 때문에 離火는 南쪽에 거하고 坎水는 北쪽에 거한다. 震은 움직이는 것이니 만물이 생겨나는 처음이다. 그러므로, 동쪽에 居하고 兌는 기뻐하는 것이니 만물이 완성된 직후이다. 그러므로, 서쪽에 居하니 이 네卦는 각각 正位에 거한다. 震은 木에 속하고 巽도 木에 속하나 震은 陽木이고 巽은 陰木이다. 그러므로, 巽은 東南의 巳位에 거한다. 兌는 金에 속하고 乾도 金에 속하나 兌는 陰金이고 乾은 陽金이다. 그러므로, 乾은 西北亥의 方位에 거한다. 坤艮이 모두 土이지만 坤은 陰土이고 艮은 陽土니 坤이 西南

에 거하고 艮이 東北에 거하는 이유는 모두 四時에 旺하기 때문이니 이 네卦는 四偶에 分居한다. 後天八卦가 震巽離坤兌乾坎艮으로 차례가 되는 것은 震巽은 木에 속하니 木生火하므로 離卦가 차례하고 離火生土하므로 坤이 차례하고 坤土生金하므로 兌乾이 차례하고 金生水하므로 坎이 차례하고 水는 土가 아니면 또한 木을 生하지 못하므로 艮이 차례하고 水土는 또 木을 生하고 木은 또 火를 生하니 八卦의 作用과 五行의 相生이 순환하여 끝이 없으니 이것이 造化가 流行하는 順序인 것이다. (進齋徐氏曰 坎離는 天地之 大用也니 得乾坤之中氣故로 離火居南하고 坎水居北也오 震은 動也니 物生之初也라 故로 居東이오 兌는 說也니 物成之後也라 故로 居西하니 此四者 各居正位也오 震屬木하고 巽亦屬木하니 震은 陽木也오 巽은 陰木也라 故로 巽居東南 巳之位也오 兌屬金하고 乾亦屬金하니 兌는 陰金也오 乾은 陽金也라 故로 乾居西北 亥之方也오 坤艮이 皆土也나 坤은 陰土오 艮은 陽土니 坤이 居西南하고 艮이 居東北者는 所以均旺乎四時也니 此四者는 分居四隅也라 後天八卦에 以震巽離坤兌乾坎艮으로 爲次者는 震巽은 屬木하니 木生火故로 離次之하고 離火生土故로 坤이 次之하고 坤土生金 故로 兌乾이 次之하고 金生水故로 坎次之하고 水非土면 亦不能以生木故로 艮次之하니 水土又生木하고 木又生火하니 八卦之用과 五行之生이 循環無窮하니 此所以爲造化流行之序也니라)<sup>12)</sup>라 하였다.

隆山陳氏는 “離는 太陽이니 큰 밝음이 동쪽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先天卦에서는 東에 있고 太陽이 남쪽 午方에서 크게 비추니 太陽이 中천에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後天卦에서는 南쪽에 있는 것이다. 坎은 달이니 달은 서쪽에서 生하니 先天卦에서 서쪽에 있고 달이 북쪽 子方에서는 크게 비추니 한밤중인 때이다. 그러므로, 後天卦에서는 北쪽에 있으니 先天卦에서는 生하는 곳에 거하고 後天卦에서는 旺하는 곳에 있으니 坎離卦 뿐만이 아니다. 後天의 卦位가 모두 生해서 왕성한 것으로 順序를 삼으니 震木은 卯에서 왕성하고 兌金은 酉에서 왕성하고 土는 中央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坤位는 金火의 사이에 있고 艮位는 水木의 사이에 있고 兌는 陰金이오 乾은 陽金이기 때문에 乾이 兌의 다음인 西北쪽에 居하고 震은 陽木이고 巽은 陰木이기

11) 周易 四 貞, 上揭書, p.560.

12) 上揭書, p.544.

때문에 巽이 震 다음인 東南쪽에 居하니 모두 五行의 生해서 旺盛하는 것으로 순서를 삼으니 이것이 이른바 易之用이다. (隆山陳氏曰, 離는 爲日이니 大明이 生於東故로 在先天에 居東이오 日이 正照於午하니 日中時也라 故로 在後天에 居南이오 坎은 爲月이니 月生於西故로 在先天에 居西오 月이 正照於子하니 夜分時也라 故로 在後天에 居北하니 在先天則居生之地하고 在後天則居旺之地하니 不特次離라 後天卦位] 皆以生旺으로 爲序하니 震木은 旺於卯하고 兌金은 旺於酉하고 土旺中央故로 坤位乾이 次兌하야 居西北하고 震은 陽木이오 巽은 陰木故로 巽이 次震하야 居東南하니 皆以五行生旺으로 爲序니 此所謂易之用也라)<sup>13)</sup> 하였다.

平庵項氏는 八卦에서 木金土는 陰陽이 각각 두 개가 있고 水火는 하나인 것에 대해 “木金土가 각각 두 개인 것은 形이 왕성하기 때문이오 水火가 각각 하나인 것은 氣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坤은 陰土이기 때문에 陰地에 있고 艮은 陽土이기 때문에 陽地에 있고 震은 陽木이기 때문에 正東에 있고 巽은 陰木이기 때문에 남쪽 가까이 陰에 접하고 兌는 陰金이기 때문에 正西에 있고 乾은 陽金이기 때문에 북쪽 가까이 陽에 접하고 있다. (平庵項氏曰 木金土各二者는 以形王也오 水火各一者는 以氣王也오 坤은 陰土故로 在陰地하고 艮은 陽土故로 在陽地오 震은 陽木故로 正東이오 巽은 陰木故로 近南而接乎陰하고 兌는 陰金故로 正西오 乾은 陽金故로 近北而接乎陽也라)<sup>14)</sup>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文王八卦方位圖는 五行을 四時에 배치한 것으로 木은 陽이므로 陽木인 震을 正東方에 배치하고 陰木인 巽을 震의 다음에 배치하였으니 陽木이 처음 강하게 뚫고 나와 陰木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이치와 같으니 甲이 陽木이고 乙이 陰木이 되는 이치와 동일하다. 金은 陰이므로 陰金인 兌를 正西에 배치하고 陽金인 乾을 兌의 다음에 배치하였으니 兌로써 收斂을 시작하여 乾에서 생명이 통일됨을 상징한다.

離는 火가 되어 主夏하므로 正南에 배치하고 坎은 水가 되어 主冬하므로 正北에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艮陽土와 坤陰土는 甲己土의 원리와 같이 甲陽土는 五土가 되어 木火의 기운으로 분열시키고 己陰土는 十土

가 되어 金水의 기운으로 통일시키듯이 坎水에서 陽의 기운을 여는 곳에는 陽土인 艮을 배치하고 離火에서 陰의 기운을 여는 곳에는 陰土인 坤을 배치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春夏秋冬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하는 五行相生의 내용만을 설명한 것인데 相生은 相克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文王八卦圖는 표면적으로 相生에 의해 만물이 변화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이면은 모두 相克으로 이루어져 있다. 八卦에서 마주보고 있는卦는 夫婦를 이루어 변화를 창조하는 근원이다. 이 관계를 보면 北方의 坎水는 離火를 克하고 西方의 兌金은 東方의 震木을 克하고 西北方의 乾金은 東南方의 巽木을 克하고 있으며 艮陽土와 坤陰土는 같은 토이지만 陰과 陽이 서로 相克하고 있다. 이것 말고도 東北方의 艮土는 北方의 坎水를 극하면서 木氣運을 탈출시키고 있고 東方의 震木과 巽木은 艮土를 克하면서 즉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火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東方은 逆度數가 작용하므로 이웃하는卦가 相克으로 되어 있고 西方은 順度數가 작용하므로 이웃하는卦가 相生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 3) 先天八卦에서 後天八卦로의 轉換原理

앞에서 隆山陳氏는 先天伏羲八卦는 創造의 法度를 이야기하므로 生하는 자리에 거하고(居生之地) 後天文王八卦는 變化의 법도를 이야기하므로 旺하는 자리에 거하고(居旺之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다.

이는 文王이 伏羲卦圖를 改易한 근본 이유를 밝혀내는 일인데 邵雍은 皇極經世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는 있다. 그러나,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이중 한가지만 살펴보고 기타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邵康節은 觀物外篇에서 “지극하도다. 문왕께서 易을 지음이어, 그것은 천지의 작용을 얻은 것인저. 그러므로 乾坤이 交하여 兌卦가 되고 坎離가 交하여 既濟卦가 되었다. 乾은 子에서 생하고 坤은 午에서 생하며 坎은 寅에서 끝나고 離는 申에서 끝나는 것은 天之時에 응하는 것이고 乾을 西北에 놓고 坤을 西南으로 후퇴시키며 長子가 用事하고 長女가 어머니를 대신하며 坎

13) 周易 一元, 上揭書, pp.125 - 126.

14) 上揭書, p. 126.

離가 得位하고 兌艮이 짝이 되는 것은 地之方에 응하는 것이니 文王之 王하는 法도가 여기에서 다 하였다. (至哉라 文王之作易也여 其得天地之用乎<sub>2</sub>저 故로 乾坤이 交而爲泰하고 坎離<sub>1</sub> 交而爲既濟也오 乾生於子하고 坤生於午하며 坎終於寅하고 離終於申은 以應天之時也오 置乾於西北하고 退坤於西南하며 長子<sub>1</sub> 用事而長女<sub>1</sub> 代母하고 坎離<sub>1</sub> 得位而兌艮이 爲偶는 以應地之方也니 王者之法이 其盡於是矣니라)<sup>15)</sup>라고 하였다.

이 글에 대해 朱子는 解說하기를 “이것은 文王이 伏羲卦圖를 바꾼 뜻을 말한 것이다. 乾南坤北을 바꾸면 乾北坤南이 되어 泰卦가 되고 離東坎西를 바꾸면 離西坎東이 되어 既濟卦가 된다. 乾坤이 바뀐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곳으로부터(乾은 南, 坤은 北) 말미암아 생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乾은 北, 坤은 南으로) 그러므로 다시 변하면 乾은 西北으로 물러나고 坤은 西南으로 물러나고 坎離의 변화는 동쪽에서 위로 올라가 西에 이르고, 서쪽에서 아래로 내려가 東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乾坤이 이미 물러났다면 離가 乾位를 얻고 坎이 坤位를 얻는 것이고, 震이 用事한다는 것은 東方에서 發生하고 巽이 代母한다는 것은 東南에서 長養하는 것이다.(朱子曰 此言文王이 改易伏羲卦圖之意也라 蓋自乾南坤北而交則乾北坤南而爲泰矣오 自離東坎西而交則離西坎東而爲既濟矣라 乾坤之交者는 自其所以成而反其所由生也라 故로 再變則乾退乎西北하고 坤退乎西南也오 坎離之變者는 東自上而西하고 西自下而東也라 故로 乾坤은 既退則離得乾位而坎得坤位也오 震用事者는 發生於東方하고 巽代母者는 長養於東南也니라)<sup>16)</sup>라 하였다.

또 玉齋胡氏는 이에 대해 “乾南坤北, 離東坎西는 先天卦의 자리이고 乾坤이 南北을 바꾸어 坤南乾北은 坤上乾下가 되므로 泰卦가 된다. 離坎이 東西를 바꾸면 坎上離下가 되므로 既濟卦가 된다. 先天卦는 乾이 午에 있되 子에서 생한다고 한 것은 乾陽이 復卦에서 始生하고 復이 子의 반이 되기 때문이요, 坤이 子에 있되 午에서 생한다고 한 것은 坤陰이 姤에서 始生하고 姤는 午의 반에 있기 때문이다. 午는 乾이 완성된 자리인데 이제 아래로 가서 子에서 坤과 交하니 이는 말미암아 생하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요, 子는 坤이 완성된 자

리인데 이제 위로 가서 午에서 乾과 交하니 이는 말미암아 생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2번째 변해서 後天卦가 되면 乾은 西北으로 물러나고 坤은 西南으로 물러나게 된다. 後天卦는 離卦가 寅方に 있되 申에서 끝난다고 한 것은 申은 坎의 자리지만 離가 坎과 交易해서 申에서 끝나는 것이요 坎卦는 申方に 있되 寅에서 끝난다고 한 것은 寅은 離의 자리지만 坎이 離와 交易해서 寅에서 끝난 것이다. 東方은 離의 본래 자리지만 變化하면 坎과 交易해서 西로 향하니 이는 동쪽에서 위로 올라가 서쪽으로 간 것이요 西方은 坎의 본래자리지만 變化하면 離와 交易해서 東으로 향하니 이는 서쪽에서 밑으로 내려가 동쪽으로 간 것이다. 그러므로 두번 변해서 後天卦가 되어 乾坤이 이미 물러가면 離는 올라가 乾位에 자리잡고 坎은 내려가 坤位에 자리잡으며 震은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시작해서 東方에서 발생하고 巽은 어머니를 대신해 일을 계승해서 東南에서 長養한다. 先天은 乾坤坎離의 交를 주로하니 그 交易이 장차 변하여 일정한 자리가 없으니 天時가 다함이 없는 거이다. 그러므로 應天이라고 했고 後天은 坎離震兌의 交를 주로하니 그 交易이 不變하고 定位가 있으니 地가 方正하여 攄攄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應地라고 했다. 이것은 文王이 易을 지은 것이 天地의 作用을 얻은 내용이고 邵子가 至哉라는 말로 찬탄한 것이다.(玉齋胡氏曰 乾南坤北 離東坎西者는 先天卦位오 乾坤이 由南北而交하야 坤南乾北則坤上乾下故로 交而爲泰也오 離坎이 由東西而交則坎上離下故로 交而爲既濟也니 先天卦는 乾이 居午而云生於子者는 以乾陽이 始生於復하니 復은 子之半也오 坤이 居子而云生於午者는 以坤陰이 始生於姤하니 姤는 午之半也라 午는 乾之所已成이어늘 今下而交坤於子하니 是는 反其所由生也오 子는 坤之所已成이어늘 今上而交乾於午하니 是는 反其所由生也라 故로 再變而爲後天卦則乾退西北하고 坤退西南也오 先天卦는 離當寅而云終於申者는 申乃坎之位어늘 離交坎而終於申也오 坎當申而云終於寅者는 寅乃離之位어늘 坎이 交離而終於寅也라 東者는 離之本位어늘 其變則交於坎而向西하니 是는 東自上而西也오 西者는 坎之本位어늘 其變則交於離而向東하니 是는 西自下而東也라 故로 再變而爲後天卦라 乾坤이 既退則離<sub>1</sub> 上而得乾位하고 坎이 下而得坤位也오 震은 代父始事而發生於東方하고 巽은 代母繼事而長養於東南

15) 邵雍著, 上揭書, p.352.

16) 周易 一 元, 上揭書, pp.121-122.

也라 先天은 主乾坤坎離之交하니 其交也 | 將變而無定位하니 天時之不窮也라 故로 曰應天이오 後天은 主坎離震兌之交하니 其交也 | 不變而有定位하니 地方而有常也라 故로 曰應地라 此는 文王作易이 所以得天地之用而邵子以至哉之辭로 贊之也라)"<sup>17)</sup> 하였다. 朱子나 玉齋胡氏 모두 邵子の 원문에 충실하게 注釋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여 타당성이 좀 결여된 듯하다.

玉齋胡氏의 아들인 雙湖胡氏는 이르기를 “先天卦의 乾中爻로 아래에 있는 坤中爻를 변화시키면 坎을 이루어 坤의 자리를 계승하기 때문에 천기는 하강하여 乾이 西北에 자리하고 先天卦의 坤中爻로 위에 있는 乾中爻를 변화시키면 離를 이루어 乾의 자리를 계승하기 때문에 地氣는 위로 올라가 坤이 西南에 자리하게 된다. 先天卦의 離下爻로 坎下爻를 변화시키면 兌를 이루어 선천 坎卦의 자리를 계승하기 때문에 離는 南에居하며 여름이 되고 兌는 西에居하여 여름 다음 가을이 되고 先天卦의 坎上爻로 離上爻를 변화시키면 震을 이루어 선천 離卦의 자리를 계승하기 때문에 坎은 北에居하며 겨울이 되고 震은 東에居하여 겨울 다음 봄이 된다. 後天卦의 乾이 이미 서북쪽에 자리잡아 先天艮의 자리를 차지하면 艮은 전진하여 동북쪽에 자리하여 先天震의 자리를 계승하니 艮卦는 또한 震卦의 倒轉卦이다. 後天卦의 坤이 이미 서남쪽에 자리잡아 先天巽의 자리를 차지하면 巽은 후퇴하여 동남쪽에 자리잡아 先天兌의 자리를 계승하니 巽卦는 또한 兌卦의 倒轉卦이다. 後天四正, 四隅의 말미암아 결정되는 이유가 이와 같으니 어찌 先天卦를 버리고서 스스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雙湖胡氏曰 先天乾中爻로 下變坤中爻則成坎而襲坤之位故로 天氣下降而乾位西北이오 先天坤中爻로 上變乾中爻則成離而襲乾之位故로 地氣上騰而坤이 位西南이오 先天離下爻로 變坎下爻則成兌하야 襲先天坎之位故로 離居南而爲夏하고 兌居西而次夏爲秋하고 先天坎上爻로 變離上爻則成震하야 襲先天離之位故로 坎居北而爲冬하고 震이 居東而次冬爲春이라 後天乾이 既位西北而當先天艮之位則艮이 進而位於東北하야 襲先天震之位하니 艮亦震之反也오 後天坤이 既位西南而當先天巽之位則巽이 退而位於東南하야 襲先天兌之位하니 巽亦兌之反也라 後天四正四隅之卦所由定이 如此하니 夫

豈舍先天而自爲之哉아)"<sup>18)</sup>라고 하였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밝힌 것으로 邵子の 내용보다는 내용이 간결하며 이해하기가 쉽다.

#### 4) 文王八卦圖의 特徵

앞에서 邵子는 伏羲八卦는 天時를 설명하고 있고 文王八卦圖는 地方에 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바꾸어서 伏羲卦圖가 地方을 설명하고 있고 文王卦圖가 天時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伏羲八卦는 上下左右의 공간적인 분별상을 가지고 있고 文王八卦는 春夏秋冬의 시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伏羲八卦에서 上에는 乾爲天이 있고 下에는 坤爲地 가 있으니 上下天地가 定位한 象이오 左에 離爲火가 있고 右에 坎爲水가 있는 것은 日月이 出沒하는 뜻이다. 즉 上下左右 四正位에는 天文的인 현상이 나타나 있고 四間位에는 山海雷風이라는 地理的인 현상이 나타나 있다. 즉 西北間에는 艮爲山이 있고 東南間에는 兌爲澤이 있으니 그것은 東南海上의 水氣가 西北 山地帶의 火氣와 相交變化하여 雲雨風雷를 일으키게 되는 뜻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東北과 西南에는 雷風이 일어나는 形象이 나타나 있다. 伏羲八卦의 卦象은 萬物을 生成 長養하는 자연의 本象이 들어 있다<sup>19)</sup>.

이처럼 伏羲八卦는 外象과 天道를 표현하고 있고 文王八卦는 內情과 天道를 계승한 人事를 표현하는 측면이 강하다.

옛날 사람들은 伏羲八卦는 對待以立其體하고 文王八卦는 流行以立其用한다고 하여 伏羲八卦는 體가 되고 文王八卦는 用이 된다고 하였다. 天地日月의 法度를 살펴보면 天地는 體가 되고 日月은 用이 된다. 따라서, 體가 되는 伏羲八卦는 體가 되는 乾坤이 中心軸에 자리잡고 用이 되는 文王八卦는 用이 되는 坎離가 中心軸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先天圖는 萬物의 創造와 出生을 의미하고 後天圖는 이를 계승하여 변화하고 발전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李正浩는 伏羲八卦圖

17) 周易 一元, 上揭書, pp.122-123.

18) 周易一元, 上揭書, p.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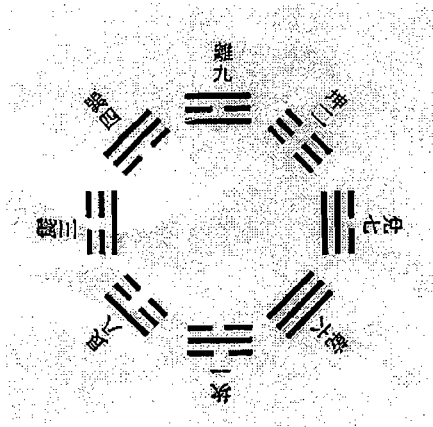
1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大田, 英文社, 1957, p.235.

를 第一卦圖, 生卦圖라 했고 文王八卦圖를 第二卦圖, 長卦圖라 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伏羲八卦圖는 봄의 작용을 나타내는 創造圖이고 文王八卦圖는 여름의 작용을 나타내는 發展圖라고도 달리 말할 수 있다.

여름철이 되어 만물이 자랄 때에는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여 무질서와 혼란이 판을 치고 違和와 乖離가 수반되어 윤리와 기강이 파괴되어 인간사회가 타락한다. 文王八卦는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卦圖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坎離를 제외하고는 長女와 乾父, 坤母와 少男, 長男과 少女가 짝하여 亂陰亂陽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는 외롭게 間方에 쫓겨가 있으며 三男과 三女가 자기 일 보는데 바빠서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고 있는 象이다. 이는 相克의 원리에 의해 相生이 이루어지듯이 싸우면서 크는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처럼 자라는 과정에서는 중심에서 의부를 향하여 氣運이 分散하고 있으므로 八卦를 그릴 때에도 중심에서 밖을 향하여 그려야 한다.

金一夫는 아래와 같이 文王八卦圖를 그려놓고 여기



文王八卦圖

에다가 洛書의 숫자를 붙여 놓았다<sup>20)</sup>.

이는 文王八卦의 원리나 洛書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象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洛書는 五土가

중심에 있어 萬物을 相克에 의해 分裂, 發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河圖는 十土가 중심에 있어 萬物을 相生에 의해 統一, 收斂하는 原理를 담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文王八卦圖는 달리 洛書八卦圖라고도 부르며 숫자가 1에서 9수까지 붙어 있어 1-9易 또는 九數圖라고도 부른다. 生卦圖인 伏羲八卦圖의 36이 45까지 자란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伏羲八卦圖의 마주보고 있는 숫자나 卦畫의 음이 9를 이루어 生卦圖를 이은 長卦圖인 9數圖의 출현을 암시하였던 것처럼 文王八卦圖는 마주보고 있는 숫자가 모두 10을 이루고 있다. 즉 九離와 一坎의 음이 10이요 二坤과 八艮의 음이 10이요 七兌와 三震의 음이 10이요 六乾과 四巽의 음이 모두 10이다.

이는 長卦圖인 文王八卦圖를 이어 成卦圖인 十數圖의 출현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 4. 結論

文王八卦次序圖와 文王八卦方位圖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위의 명칭을 최초로 붙인 사람은 邵雍이며 위의 두 그림을 文王이 그렸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伏羲易을 推演하여 人事와 結合하여 지금의 역학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文王이고 周易 본문의 易理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
2. 文王八卦次序圖에서 三男이 一陽二陰으로 구성되고 삼녀가 一陰二陽으로 구성된 것은 陰陽互根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3. 伏羲八卦方位圖가 보다 空間的인 分別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文王八卦方位圖는 四時, 八節의 변화와 萬物生長의 流行周期 등 시간적인 變化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4. 文王八卦方位圖는 四時의 五行과 일치하여 相生하고 있으며 八卦에 木金土가 각각 2개인 것은 形이 旺盛하기 때문이고 水火가 각각 하나인 것은 氣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5. 文王八卦方位圖가 表面的으로는 五行相生으로 나

20) 李正浩, 第三의 易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p.70.

- 타나고 있지만 마주보는 八卦의 五行이 모두 相剋하고 동쪽의 이웃하는 坎水 艮土 震木 巽木이 모두 相克하는 것은 相克이 만물을 발전시키는 主体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6. 伏羲八卦가 文王八卦로 전환하는 원리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正說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7. 伏羲八卦는 天道 外象 등을 나타내고 있고 文王八卦는 人事 內情 등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8. 伏羲八卦는 體가 되고 文王八卦는 用이 되므로 伏羲八卦에는 변화의 主体인 天地 卽 乾坤이 中軸에 자리하고 있고 文王八卦에는 변화의 大用인 日月 卽 坎離가 中軸에 자리하고 있다.
  9. 伏羲八卦圖는 봄의 변화상을 나타내는 第一掛圖 生掛圖 創造圖에 속하고, 文王卦圖는 여름의 변화상을 나타내는 第二掛圖 長掛圖 發展圖에 속한다.
  10. 文王八卦圖는 流行以立其用한 易之用이므로 무질서와 혼란, 韋和와 乖離가 亂舞하는 亂陰 亂陽의 象을 나타내고 있다.
  11. 文王八卦圖와 洛書의 변화원리는 일치하므로 洛書의 數를 文王八卦圖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으며 일명 洛書八卦圖, 九數圖, 一九易이라고도 부른다.
  12. 文王八卦圖의 마주보는 숫자의 合을 더하면 모두 10이 되므로 成卦圖인 十數圖의 出現을 예시하고 있다.
6. 周易 一, 元, 大田, 學民文化社.
  7. 周易 四, 貞, 大田, 學民文化社.
  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大田, 英文社, 1957.

## 參考文獻

1.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2. 邵雍, 皇極經世,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2.
3. 呂紹綱 主篇, 周易辭典,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2.
4. 殷時學 等編著, 周文王羨里城,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6.
5. 李正浩, 第三의 易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